

레바논의 공교육 분야 정책 실행의 한계: 시리아 난민 아동 교육을 중심으로

이경수 (Lee, Kyungsoo)

2011년 시리아의 아랍의 봄 시위로 촉발된 내전이 발발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근 국가인 레바논은 현재 약 1백만-1.5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2018-19학년도 기준 레바논 내 학령기 시리아 난민 아동의 수는 약 66만 명으로 집계되나 약 42% 정도만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레바논 정부는 UNHCR을 포함한 비정부단체들과 협력하여 2014년 시리아 아동들을 포함한 국내 학령기의 아동들에게 12학년까지 무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불법 입국한 경우도 포함) 'Reaching All Children with Education (RACE)'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 종료된 RACE I 은 정부 보고서 등에서 표면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정책은 학교 실정과 난민 아동 교육에 대해 장기적으로 계획하지 못해, 여러 연구들에서 현실적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RACE I (2014-2016)정책과 RACE II 정책 (2017-2021)에 대한 정책분석을 진행하고, 레바논의 전체적 공교육 정책결정과 그 실효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단계에 있다.

한국외국어대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관계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한 후 레바논의 국립레바논대(Lebanese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와 명지대 강사로 아랍어와 중동 사회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이다. 레바논의 교육제도와 직업교육,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넓게는 중동지역의 교육,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사회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시: 2021년 04월 27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